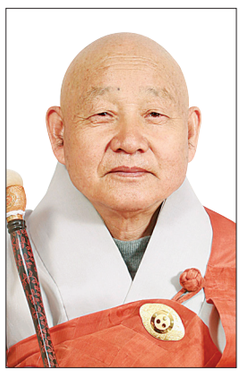
세상사 아픔 보듬는 치유의 희망 피우자

무풍한송의 맑은 바람 사바를 청정케 하네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影閣(영각) 앞 慈藏梅(자장매)가 잎을 떨구고 겨울을 지내는 것은 향긋한 봄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금강계단 앞을 흐르는 계곡물은 산중의 소식을 세간에 전함이로다.

대중이 모여서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는 일은 출격장부를 배출하여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며, 갈증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甘露(감로)를 베풀기 위함이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요, 모두에게 구족한 自性淸淨心(자성청정심)이 드러나니 질병은 저절로 소멸되며, 위기는 기회가 되도다. 대립과 갈등이 自他(자타)가 본래 한 몸임을 자각하면 세상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임을 알게 되었도다. 번뇌 그친 곳에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現前(현전)하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되도다.

細思乃不然(세사내불연)하고
眞巧非幻影(진교비환영)이로다.
欲令法語妙(욕령법어묘)인데
不厭空且靜(부염공차정)이로다.
靜故了群動(정고료군동)하고
空故納萬境(공고납만경)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고요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고 묘한 법어를 만들려면
공과 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고요하기에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고
공하기에 모든 경계를 포용한다네.

초심 잃지 않고 사부대중과 정진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갑진년(甲辰年)에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는 푸른 용의 해가 되길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 드립니다.

허나 환희로운 하늘 세계와는 달리 발 디딘 대지에서 만나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세간사(世間事)로 인하여 갈등과 번뇌가 쌓이고 겹쳐지면서 국민전체의 정신건강까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제(諸)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종단에 부여된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부대중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갑진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계로 삼독심 떨쳐내자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푸른 용의 기상이 솟구치는 갑진(甲辰)년은 모든 불제자가 계를 잘 지켜 삼독심을 떨쳐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계(持戒)는 불제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수행 덕목입니다. 계율이 바로 서지 못한 종교는 종교로 성립하기 어렵고, 신도들이 계를 준수하지 않는 종교는 오랜 세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계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선업(善業)을 쌓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청룡의 기운이 솟는 갑진년, 우리 불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고, 지계의 힘으로 이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힘 모으자

도진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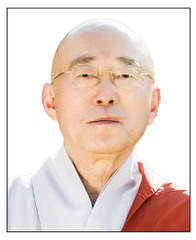


불기 2568년,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 신비로운 기상, 가없는 지혜와 통찰의 기개를 닮아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60년 전 갑진년, 종단은 진각백년, 나아가 진각천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종단은 이 반석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리세계가 세워져 있으면 현실세계도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원자주의 종교와 심성진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생명을 헤치고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풍요와 안락을 누리며 국내의 정치와 경제적 안정,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인공지능 시대와 부처님 가르침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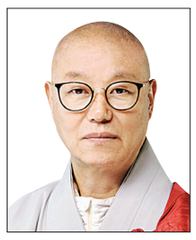
지난 2016년에 바둑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이기더니 요즘은 더욱 새로워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맛있는 김치를 나누는 회향의 지혜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후불식 하시며 탁발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주자에게 작은 시주의 공덕으로도 무량복덕을 쌓게 하려는 커다란 지혜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동체대비 가르침 목표로 정진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신년의 태양을 품고 박차오르는 힘찬 청룡의 기운이 모든 악운을 깨고 국민들의 마음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갑진년 한 해 동안 한국불교태고종은 육부대중이 진력합심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하면서 종교 본래의 책무인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번영하는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 전통문화의 육성과 미래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불교 정통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와의 소통으로 진정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호지묘력으로 온 나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실천으로 온 세상에 자비광명을

우인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 정진을 할 때 비로소 불국정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를 위한 대승적인 서원을 세워 봅시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실천으로 온 세상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작은 善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한 부처님 미소 보리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빛나고 부처님 품에는 중생이 있으니 모든 생명이 존귀하여라.

고통 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작은 선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 거룩한 부처님의 미소를 보리라.

어려움 속에도 한줄기 희망이 비추리니 불보살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어 늘 새롭고 새로운 시절을 만나리.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을 염원하며 오직 깊은 신심으로 일심청정 수행에 힘써 무량 공덕의 보배 탑을 쌓으며 성불의 길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은혜와 회향이 희망입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태양은 여전히 광명을 놓아 새해를 열고 군생은 새날의 희망을 소담하게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상서러운 기운이 가득 서리니 선남선녀 마음 여미고 맑은 서원 세웁시다.

과학문명 혜택에도 갈등과 분쟁은 늘어가고 물질발전 풍요 속에 빈곤과 차별이 깊어져도 물질문명 다스리는 본연(本然)의 마음 되찾으면 이곳이 평화세계라고 심인진리 일깨워줍니다. 세간사 여기저기 미움과 다툼이 끝없어도 은혜의 이치 깨치면 화해의 기운 우러나서 나라거나 사회마다 함께 사는 동네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웃음꽃 터전 됩니다.

근본을 앞세우면 지말(枝末)은 절로 따라가니 제각기 고마운 마음을 지금 먼저 돌려주고 정치와 경제도 바른 길 본받아 걷게 하여 은혜 누리며 회향(廻向)의 세상을 열어봅시다.

새해에는 청량한 기운이 세상사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은혜의 큰 품으로 감싸서 갑남을녀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희망을 피워봅시다.

평화 나누는 길잡이 됩시다

홍파 스님
관음종 종정



갑진년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온 산하대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은 지혜와 깨달음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인드라망이며, 지구라는 한배를 탄 동체대비의 한 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인지 모르기에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며,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적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듦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웃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쳐야 합니다.

지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평화롭지 않으면 내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평화를 나누는 길잡이가 됩시다.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스리자

운경 스님
태고종 종정



세속은 날을 헤아리고 달을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일일호일(日日好日) 월월선명월(月月善明月)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바르고 참답게 살면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 한 달이 역시 더 좋은 달(月)이 되고 그 좋은 달들이 모여서 더 좋은 해(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한 해를 잘 사는 것이고 나아가 평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고 착해지면 그들이 사는 세계도 아름답게 장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독한 신심으로 세상을 보다 밝게 만들고 메마르지 않고 인정이 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과(因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을 훼방하고 괴롭히면 그 결과는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등을 밀고 남을 속이면 결국 그 손해는 나에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신심이 돈독한 참 불제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원력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버려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와 세계가 바로 불국정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돈독한 신심으로 부처님이 됩시다. 그럴 때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 갑진년 좋은 한 해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